

구 스즈키 가문 저택의 앞으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중요문화재 지정된 다음 해 2014년도부터 보존 수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 스즈키 가문 저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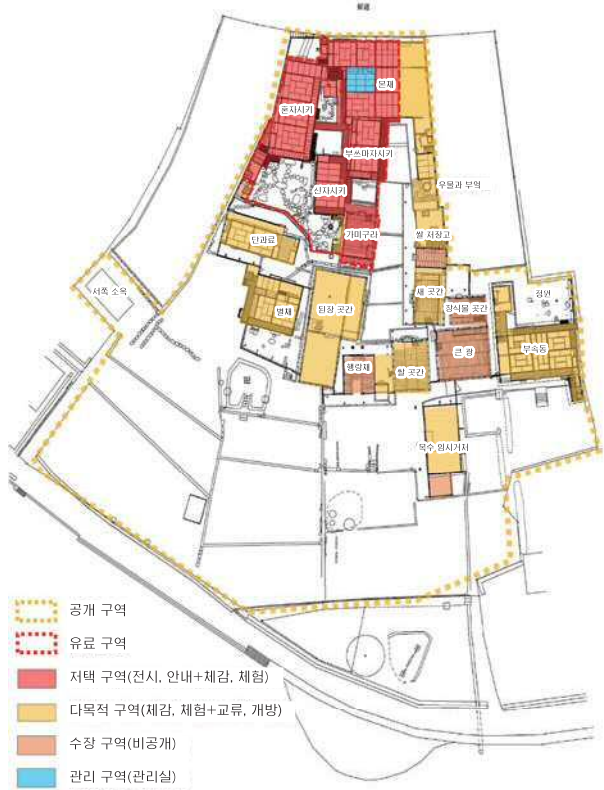
정비 후의 건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걸쳐서 유식자, 주민 대표, 관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활용 방향성이 표명되었습니다.

【활용 콘셉트】

배우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아스케 거상의 생활

【기본적인 방침】

- ① 구 스즈키 가문 저택의 가치를 전하고 공유합니다.
- ② 아스케의 도시 만들기과 일체화된 활용을 합니다.
- ③ 주민과 관광객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COLUM】 보존 수리와 병행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



【목조건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방재대책'】

화재에 약한 문화재 건조물을 지키기 위해 소화설비, 자동화재경보설비, 방범설비 정비 등의 방재 대책도 함께 실행해 나갑니다.



【건물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활용 정비'】

귀중한 문화재 건조물을 한층 더 유효하게 활용해 가기 위해 조명설비, 전원설비, 배수 설비 등의 시설활용에 관한 정비도 함께 실행해 나갑니다.

【자사키 공간에서의 활동을 꾸미는 '정원 정비'】

구 스즈키 가문 저택에는 건축 시기가 다른 방들이 있고 또 자사키에 면한 정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원도 보존 수리 공사에 맞춰 정비해 나갑니다.



【중문 구 스즈키 가문 저택을 더욱 더 알리기 위해서】

위에서처럼 다양한 공사를 동시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구 스즈키 가문 저택 정비 사업은 더욱 많은 분들에게 구 스즈키 가문 저택을 알리기 위해 2023년도 중에는 본채 부분을 공개하고 2030년도에는 총 16동의 보존 수리를 끝마쳐 전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